네 가지 책임 맡은 대승보살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㊶ 대승보살의 책임

〈원문〉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은 원력의 대지(大地)를 만들어 그 위에 네 가지 책임을 맡습니다. 그 네 가지 책임이란 선지식을 떠나 정법이 아닌 것을 들은 중생들을 인간과 천상의 선근으로써 키워주고 성문(聲聞)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문에 맞는 것으로써, 연각(緣覺)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연각에 맞는 것으로써, 대승을 구하는 자에게는 대승에 맞는 것으로써 각각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선남자 선여인의 네 가지 무거운 책임이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선남자 선여인이 원력의 땅을 만들고 네 가지 무거운 책임을 맡는다면 널리 중생들의 청하지 않는 벗이 되어 큰 자비로 중생들을 위로하고 불쌍히 여겨 세상에서 법(法:진리)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강설〉 〈범망경〉이나 〈심지관경〉 같은 경전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대지(大地)에 비유하여 심지(心地)라는 말을 쓰고 있다. 또 예로부터 천지(天地)의 덕(德)을 부재지덕(覆載之德)이라 하여 하늘은 만물을 덮어주고 땅은 만물을 실어준다고 하였다. 대지가 만물을 실어주는 것처럼 이 장(章)에서는 대승보살의 책임을 네 가지로 요약하여 설하고 있다. 대지가 일체 만물을 실어주는 것을 네 가지로 요약하여 바다, 산, 초목, 중생이라 말하고 그것에 비유하여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은 네 가지 책임을 맡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바로 정법을 거두어들이려는 대승보살이 실천해야 할 일이다. 선지식을 만나지 못해 정법을 듣지 못한 불우한 중생들에게 선근을 심어 키우게 해 인간세상과 천상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고, 성문과 연각 이승(二乘)들에게는 그들의 근기에 맞는 방편을 쓰고, 대승을 구하는 자에게는 대승법으로써 가르침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부처님 법을 만나는 인연을 심어주는 일이다. 부처님 법에도 인연이 있어야 한다.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지 못한다.(不能度無緣衆生)' 는 말이 있다. 〈증일하함경〉에는 부처님이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땅에 서지 못한 중생들을 믿음의 땅 위에 서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큰 자비로 세상을 위해서 법의 어미니(法母) 곧 진리의 어머니가 되겠다는 말이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진다. 불모(佛母)라는 말처럼 쓰인 법모(法母)라는 말이 대승보살의 지극한 서원에 의해서 나온 말이다.

원래 불모(佛母)나 법모(法母)는 모두 바라밀다의 공덕을 일컫는 말로 쓰였다. 〈대반야경〉에 나오는 말로 "매우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는 모든 선한 법의 모태이니 모든 바라밀다의 수승한 공덕을 낳는다" 하였다. 또한 법모라는 말은 법을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지극한 정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하여 어머니에 의지하는 것과 같이 공경하는 마음을 지니고 그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이를 법모라 하는 것이다. 법모가 되겠다는 승만 부인의 원력은 대승정신의 표본이다. 대승의 수행에는 반드시 이타(利他) 원력이 갖추어져야 한다. 불보살이 과거 인위(因位)에서 성취하고자 굳게 맹서했던 본원력(本願力)을 대승의 수행자는 모두 그대로 본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력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다. 그리하여 원력은 불가사의하다 말해 왔으며, 또 원력에 의하여 정토를 성취한다고 하여 원력성취정토(願力成就淨土)라 하였다.

〈승만경〉은 승만 부인의 원력성취를 부처님으로부터 인증 받는 경전이라 할 수 있다. 중생을 위한 대비원력으로 정법을 거두어들여 근기에 맞춰 법을 설해 중생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서원이 부처님의 본원력을 방불케 한다. '청하지 않는 벗이 되겠다' 는 말도 이색적인 말이다. 상대방이 청하지 아니해도 내가 먼저 다가가 선우(善友)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成佛, 스스로 진여본성 발현시키는 것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⑭ 선정수행 조건과 깨달음 위한 조절법

들어가는 말

불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자라면 누구나 부처님과 불보살님께 의지하며 기도 수행을 하는 신행 활동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불교의 신행 활동을 통해 우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병장수의 건강이나 가정의 화합과 평화, 그리고 자녀의 학업성취와 남편의 사업성취 등 개인의 소원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현실적 목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을 성취하는 것이겠지만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성불입니다. 즉 해탈 · 열반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성불이란 우리 모두가 본래부터 구족하고 있는 청정한 진여본성을 자기 스스로 발현시키는 것입니다. 참 나의 실상을 밝혀 청정한 진여본성과 마음이 상응하게 만들어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 대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불은 중생 누구나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고 있는 청정한 진여본성을 회복하여 완전무결한 자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사윤회의 원초적 괴로움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자유인의 길을 개척하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불자 여러분! 성불의 길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법에 맞는 수행을 실천해 나간다면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평범한 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믿음과 인욕과 성실한 노력이 요구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한국불교에서는 성불을 하고 대자유인이 되기 위한 수행법으로 참선 · 염불 · 주력 · 간경 · 사경 · 절 · 지관 · 위빠사나 · 조사선 등의 실천법을 대표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진심법문에서는 여러 수행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참선, 그 중에서 선정과 삼매를 이룰 수 있는 5가지 인연 조건들과 깨달음을 얻기 위한 몸과 호흡과 마음의 조절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참선과 선정 수행의 5가지 조건

불자 여러분! 참선과 선정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5가지 인연 조건, 즉 5가지 환경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다섯 가지 조건에 대해서 중국의 천태 지의대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계청정(持戒淸淨)으로, 계(戒)를 청정이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식구족(衣食具足)으로, 먹고 입는 의식에 대한 환경을 구족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한거정처(閑居靜處)이라고 해서 수행하기 좋은 고요하고 청정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식제연무(息諸緣務)인데 불필요한 모든 인연을 끊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득선지식(得善知識)이라고 해서 훌륭한 스승을 항상 가까이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설명을 펼쳐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정 · 삼매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계를 청정히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올바른 선정(禪定) 삼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 계율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재가불자들은 재가불자의 오계를 깨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사음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술을 먹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계(破戒) 행위를 하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제천 선신 성현들이 노하여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참선이나 선정 수행이 잘 될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선정 수행을 얻기 위해서는 제천선신들의 가피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도리어 파계하여 선신들의 노여움을 사게 되면 선정 수행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계율을 어기면 참선이나 선정 수행을 할 때 불보살님이나 제천선신의 가피력은 고사하고 도리어 마(魔)나 귀신들이 치성하게 침범하여 수행자를 '주화입마' 상태로 만들어 정신이상자나 폐인으로 만들어서 한평생의 수행을 망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절대 계율을 어기는 파계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㊶ 불의 비유와 밧차곳따의 경 2

"던져버릴 것 없으니 던져버려라"

"밧차여, 그대 앞에 불이 꺼질 때, '그 불은 이 곳에서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의 어느 방향으로 간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밧차여, 그 물음에 대하여 그대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존자 고따마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 불은 풀과 섶의 땔감을 조건으로 타오르고, 그 땔감이 사라지고 다른 땔감이 공급되지 않으면, 자양분이 없으므로 꺼져버린다고 여겨집니다."

"밧차여,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물질로써 여래를 묘사하려고 하지만, 여래는 그 물질을 버렸습니다."

가져본들 쓸모가 없고 버려본들 잃었다고 할 것 없지만, 뭇 삶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발버둥치면서 괴로워한다. 뭇 삶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세월을 유전(流轉)했지만, 다시 수많은 세월을 반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궁금해 한다. 삼계에 그 무엇도 오고 가는 것이 없지만, 물질을 '나' 라고 하는 한 생각으로 물질이 오고 간다고 믿고, 오고 가는 뭇 삶이 되어 버린다. 뭇 삶은 오고 가는 것이 자신이 상상으로 지어낸 토끼뿔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실처럼 알고 찾아다니면서 물어본다. 다행히 토끼뿔의 이름은 존재하지만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접하더라도, 바른 믿음을 낸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고 장애가 따르게 된다. 듣는 뿌리가 견고하여야만 흔들림 없이 바르게 들을 수 있다.

이 세계가 상대성을 지닌 존재로서,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없이 살며 의식 속에 그려놓은 그림들에 마지막 터치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뭇 삶은 수행이든 삶이든 마지막에 대한 기대를 항상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그의 일은 붓을 내던져 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실행하지 못해 오고 감이 그치지 않는다. 붓을 던져 버리지 않는 한, 계속하여 오고 가는 일은 고통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뭇 삶들은 지금 내가 여기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 자신의 목적인 것으로 착각한다. 생명체가 추구하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상대가 있는 비교에서 생기는 마음의 작용이다. 그런 것이 있는 줄 알고 찾아다닌다면 아마 생명체로 아무리 반복해서 태어남을 경험하더라도 진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무엇을 찾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찾는다는 그 마음이 무엇인 줄 알면, 찾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괴로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찾는다는 것을 자세히 숙고해 보면, 찾을 수 있는 것은 없고 계속 변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 그러다 보니 찾을 것 같은 마음은 생겨나지만, 조금 앞으로 나아간 것 때문에 일어난 착각이었고, 그 착각은 계속되어 결국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던져버리는 것이 어려운가? 그렇지 않다고 강하고 확고하게 대답하지만, 던져버릴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던져버리라고 말하는 입장에서는 던져버릴 것이 없으니, 그것만큼 쉬운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질, 느낌, 지각, 의도, 의식의 위험은 위험이 있어 위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나[我]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나[我]다' 라고 하면 꼭 무엇을 소유한 것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소유의 마음은 존재성을 가져버린다. '버려라' 라는 말의 뜻을 읽어내지 못하면 꼭 해야 하는 행위가 있는 것처럼 듣게 되어 고민에 빠지게 된다. 고민하는 행위의 주체가 망념과 망상으로, 허우적거리며 연기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한 행위들을 꼭 자기 일처럼 알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바로, 드러내어 알지 못하면, 계속하여 반복하는 수행 아닌 수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던져 버리고 나니, 던져 버린 것 어디에도 없었고,
던져 버리기 전의 고민 헛생각인 줄 아네.
듣는다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 없으면
드러나는 일, 찰나(刹那)라고 할 것 없이 드러나 있었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일일시호일

응급 수술 받았지만
심장 구멍 다시 뚫려 생명 위험

스리랑카에서 온 산지와씨 염색공장에서 10년간 일해
의식 잃고 쓰러져 응급실행…청구된 병원비만 22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